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단골가게 아저씨였다. 친절하기 그지없이 '말만 잘하면 신발도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열한 살짜리 어린 소녀를 성추행했다. 그런 다음 살해해서 불에 태웠다.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싶었다.

어찌 이런 일이 또... 사람이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노에 지쳐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무력감까지 들었다.

10년 쯤 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자원봉사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절규. 피해자는 과년한 처녀들뿐이 아니었다. 열 살도 안 된 여자아이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당한 것만도 서러운데 이를 문제시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하면 사회가 피해자를 냉대했다. 별 것 아닌 일 같고 떠들어댄다며 핀잔을 주고, 꾸며낸 일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당한 사람 잘못 아니냐고 덮어씌워 이중의 고통을 주기도 했다.

귀가 의심되고 일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믿기지 않는 일이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히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그도 사람일진대

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도 상담 전화통이 열 사이가 없을 정도로.

성폭력 상담 자원봉사를 그만둔 뒤 혼란을 잊고 싶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그런데 다시 어린 소녀의 죽음을 전해 들으면서 그때의 혼란스러움, 분노, 막막함이 되살아났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이었다고 한다. 잡혀갈 때 주변인 그 아버지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은 잘 모른다. 내가 저지른 것이다. 아, 그도 사람이었다. 그도 자식을 아꼈 줄 아는 사람이었다.

더욱 혼란스럽고 더욱 화가 났다. 사람이면서, 사람이면서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사실, 그도 피해자일 수 있다. 심리적 문제가 있어 어린 소녀에 대한 성적 욕망을 주체 못하는 병리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푸는 도구로만 보는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상대방인 어린 소녀가 자신을 유혹했기 때문이라

고 합리화하거나, 상대방을 너무도 위하고 아끼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무 반항을 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인자적 왜곡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 과정과 기제를 배우고 나니 가해자를 미워할 수도 없다. 그의 생리적, 심리적 인생에서는 또한 그럴 만한 내력과 사유가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였던 50대 남성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젊고 건강한 청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이번 사건을 가슴 아프게 겪으면서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일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 같으면 남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던 일을 이제 우리 일, 바로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선악(善惡)의 행위를 하고 공동으로 고통(苦樂)의 과보를 받는다는 불교의 공인(共業) 개념을 절절히 깨닫고 실천했으면 한다.

이게 바로 열한 살짜리 소녀가 처참하게 죽어 가면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불자의 눈

는설위원 기명사설

지금 국회에는 사형제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법무부에서도 사형제도 존폐문제를 심층연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사회적 양심 세력이 주장해 온 사형제 폐지가 올해 안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사형제는 오래전부터 법이란 이름의 또 다른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범죄는 사회적 부조리가 만드는 것이지 저지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는 범죄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주목해야 하며, 범죄인의 처벌만이 능사라 여겨서는 안 된다. 사형제는 범죄의 원인이 되는 빈곤이나 정신장애 등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복잡한 문제와 책임을 단순히 처리해 버리려는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인간교화는 형벌이 아닌 자비와 사랑'이라는 종교적 측면에서 타 종교와 함께 사형제 폐지 주장에 참여해 왔던 불교는 교리적으로도 사형이 용납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 빠른수록 좋다

부처님은 100명의 사람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99명의 사람을 죽인 앙굴마라를 조복시켜 선지식을 만든 분이다.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려 참회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교화법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금 사형제폐지는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 유럽정부가 협력기구인 유럽의회는 2003년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제 전면금지장서를 발표, 형식은 물론 전신나 전정위협상황에서도 사형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물론 유럽연합(EU)도 사형제 철폐를 가입 조건으로 삼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 폐지국이 사형국보다 훨씬 많다.

아직 국민적 정서가 극악법에 대한 일벌백계식의 사형제 존치론에 기울어져 있다고는 하나, 지금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범죄인에 대한 진정한 교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사형제 폐지는 빠른수록 좋다.

김정자(법률박사)

이렇게 들었다

선물

"중생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인들 아가우리. 그래도 모자라면 이 몸도 바치리라." <보살본원경>

최근 쓸쓸한 통계자료가 나왔다.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이른바 '셀프 기프팅(Self Gifting)'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문 결과다. 한 인터넷 쇼핑몰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넘게 '셀프 기프팅의 경향이 있다'고 답해 이 같은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게 보내는 선물비율도 후했다. '10만 원 이상 선물하겠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이란 응답도 무려 11%나 됐다. 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구입하는 선물의 평균 비용은 1~3만 원대라는 대답이 43%로 제일 높았고, 비용은 3~5만 원대에 불과했다. 자신에게는 푸짐하게 쓰되, 타인을 위한 씀씀이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셈이다.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원인은 '나눔 문화'의 부재에 있다. 셀프 기프팅의 목적에 대해 '예산지 못한 수입이나 여유 돈이 생겼기 때문', '기본 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란 대답이 응답자 가운데 절대적인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물론 '내 돈 내 식으로 쓴다'고 항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벌여 쓰든, 공돈이 생기든 쓰는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짱'의 미덕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자. "베짱(보시)이 보살의 정토다. 보살이 상불할 때 온갖 것을 베풀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작은 나'를 벗고, '큰 우리'를 생각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주문해볼 일이다.

김철우(경제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이름모를 행자의 친절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사찰의 분위기는 한가하고 조용하며 친절하다는 것이다. 마땅히 정하고 다니는 사찰은 없지만 주말마다 떠나는 가족 여행코스에는 반드시 산사를 들른다.

2월 중순에 찾아간 오대산 월정사. 그곳에서 만난 행자님에게서 받은 친절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하고 시간에 쫓겨 월정사를 빠져나왔지만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가족이 오대산을 찾은 날은 날씨가 맑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땅이 얼어 조심히 걸어야 했다. 추위와 배고픔이 밀려오는 때라 눈에 띄는 행자님에게 말을 붙였다.

마침 이날은 수도권사찰 두 군데서 1000명이 넘는 신도가 찾아와 사중이 번잡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실은 기색이 띠고 있는 찾아볼 수 없이 "맛있게 드시라"며 친절로 우리를 대중공양간으로 인도했다. 더구나 해맑은 미소로 배웅까지 해줬다.

산채나물과 미역국이 일품이었다. 늦게나마 공양간에서 고생하는 보살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아이들 역시 오대기억에 남을 것 같다. 범명도 알 수 없는 행자님들이 언제나 변

함없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큰 제자가 되기를 기원하고 싶다. 보리심(뱃다뉴스)

불교문화 체험기회 늘려야

바쁜 생활 중에도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틈만나면 구경 다닐 정도로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전업주부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들어 주로 신문사의 문화면을 통해 정보도 얻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다.

지난주 문화면에 나온 서각가 해안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유심히 읽었던 터라 시간을 내 전시회를 다녀왔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어린이 판화 교실과 같은 교육과정이 진행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팔만대장경을 판각하던 수행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나라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이런 전시회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다.

전시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즐기는 감상의 차원을 넘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듯 싶다.

문화적 정체성을 날로 잃어가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직접 그려보는 단청교실'이나 같은 불교문화와 전

통문화강좌가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바란다. 김기희(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계올림픽 빛낸 불자선수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승전보가 속속 날아들었다. 정말 신명나는 한 주였다.

더욱이 불자로서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쇼트트랙의 안현수, 변현수, 이호석 등이 불자라는 사실이다.

이력만리 이태리 토리노에선 선수들이 몸과 마음을 집중해 얼음 트랙을 돌았고, 가족들은 염주를 굴리며 아들딸들을 일심(一心)으로 응원했다.

'이심전심(一心傳心)'이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더욱이 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대목은 이호석 선수의 아름다운 양보였다.

1500m 결승전에서 이호석 선수는 마지막 한바퀴를 남기고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아웃코스에서 치고 들어오는 안현수 선수에게 순순히 선두를 내준 것이다.

이호석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 선수였다면 결코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란 말을 했다고 한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이타행을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침착하고 여유있게 펼친 장한 이호석 선수와 불자선수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장한숙(서울 강남구 개포동)



여법한 수행강당 | 공부하는 청정강원 동화사 전통강원

불기 2550년 신입/편입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1.모집대상 : 처문반 00명 사집반 00명 사교반 00명 대교반 00명

2.모집기간 : 신입반부 3월 1일 ~ 3월 25일(처문반) 편입반부 3월 1일 ~ 3월 31일 (일방 1차: 3월 20일, 2차: 3월 25/31일)

- 3.구비서류 : 1.입방원서,2(방문 작성) 2.은사스님 추천서 3.건강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각1부 4.승려증 (승계증명서/행자교육필증) : 사본 각 1부 5.사진 (3x4) 3장 /법명도장 (편입자는 수료증 또는 전학증 지참)

4.준비물 : 가사(만), 장삼, 발우

5.전 형 : 서류심사 및 면접

6.문의처 : 동화사 강원 053)985-1984 053)983-2500



논강식 강론



태극권 수련



저녁 좌선 정진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기인 북용100일후 발령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량,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 등이 나타나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 면,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번도 발병한 사실 ◆ 인체에 유해한 불필요한 성분이나 다량첨가, 염색을 확실하게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 이점 중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와 하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일삼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에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시라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금단화 (100일간 발효시킨 콩) 바르는 콜라겐 (소비자가 ₩ 65,000)

※ 5주년 행사기념으로 금단화 또는 폴시노 구입 하시는 분들에게 바르는 콜라겐을 드립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장례 지도자 시험준비를 위한 장례 문화 학과 학인 모집

한국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본원은 서기 2005년 서울특별시 장묘문화센터 주최 제1회 장사문화제에 참석하는 등 그동안 한국 장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번 서기 2006년 7월경 실시 예정인 제4회 장례, 지도자 시험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1. 개 강 일 : 2006년 3월 25일 2. 강의일시 : 매우 토요일 오후 3시~6시 (3시간 강의) 3. 교 과 목

	1학기	2학기
1학기	장례지도사자격시험준비반 장례학 개론 상장례학 공중보건학 장사관련법규 I 실습	장사관련법규 II 의학용어 제의례학 해부학 병원미생물학 실습
2학기	장례기획 사체화학 종교별 장례의식 Embalming 시신 Make-up 실습	홍스피스 실버매니지먼트 정제용품 및 유통 집단지 연구 장례식장 경영론 실습

-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3매 5. 문 의 : (02)741-0495~6

해동 장례문화연구소 해동 불교 대학원